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8315
----------	------

발의연월일 : 2025. 2. 20.

발 의 자 : 남인순 · 정성호 · 오세희
장종태 · 김영호 · 진선미
김 윤 · 한정애 · 문진석
정희용 · 정춘생 · 서영교
김남희 · 임미애 · 정준호
임호선 · 이병진 · 이재강
신정훈 · 김원이 · 전진숙
이훈기 · 이수진 의원
(2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가정폭력에 의한 살인사건이 다수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배우자 살해의 경우 가해자는 현행법 제1004조에 해당하여 상속결격이 되어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할 수 없음.

그런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가 1순위 상속인이 되고, 가해자는 직접 상속을 받지는 못하였지만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재산권을 대리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자기가 살해한 배우자 재산의 관리권을 행사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함.

이에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인 법정대리인 일방이 다른 일방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하였거나 또는 신체에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여 상속결격이 된 경우,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적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녀의 재산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상속재산을 둘러싼 불합리를 해소하려는 취지임(안 제925조제2항 신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정대리인인 친권자 일방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1. 고의로 다른 친권자 일방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경우
2. 고의로 다른 친권자 일방에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9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전에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로 상속결격된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25조(대리권, 재산관리권 상실 의 선고) (생 략) <u><신 설></u>	제925조(대리권, 재산관리권 상실 의 선고)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u>법정대리인인 친권자 일방 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경 우에도 제1항과 같다.</u> <u>1. 고의로 다른 친권자 일방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경우</u> <u>2. 고의로 다른 친권자 일방에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u>